

# 마음의 병 고치는 의사가 꿈 “열심히 하면 이뤄질까요?”



일본인 엄마를 둔 김명수(가명·17·고교 1년)군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김군의 요청으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무안=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⑤ 미래를 불안해하는 아이들

몽골인 엄마를 둔 박선호(가명·18·고교 3년)군의 어릴 적 꿈은 의사였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꿈을 접었다.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하고 폭력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보살피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나간 박군은 현재 광주의 한 공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

박군은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 대한 원망도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가정 불화·성적 하락·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모든 원인이 아버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군은 고교 진학 후 정체성 혼란을 겪게되면서 친구·가족 관계 등 모든 면에서 불행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친구도 없다. 어릴 적부터 혼자 노는 게 습관이 된 탓이다. 아직까지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교제를 할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 친구도 놀림을 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박군은 “학교와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대학에 진학해도 외톨이일 게 뻔하고 가정 형편도 못된다며”면서 “전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다음 생애에 태어나면 달라지겠죠. 혼혈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에 따

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미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일본인 엄마를 둔 김명수(가명·17·고교 1년)군은 이제 절망을 본다. 김군은 중학교 졸업 때까지는 반에서 5등 안에 들 만큼 우등생이었다. 하지만, 고교 진학 후 성적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국어와 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선행 학습을 해주는 학원에 다니지 않고서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그는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라고 씩씩하게 웃었다. 김군은 싸움 잘하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 보호 받는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놀림과 무시를 당해왔었다. 김군은 이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신 이들이 시키는 담배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고 대신 해준다.

복종 등 불평등한 상하관계를 통해서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 누구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 농사를 짓는 김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공부에 관심이 없다.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양과 밭과 논에 불러갈 뿐이다.

김군은 “학원에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농사 외에 가족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집에서조차 소외받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아버지가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옛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2005년 12월 현재 다문화가정 2세의 초등학교 중도 탈락률은 전체 5300여명의 9.4% 수준이고, 중학교 중도 탈락률은 전체 600여명의 17.5%에 달한다. 한국인 학생 초등학교 중도 탈락률 1.1%, 중학교 중도 탈락률 1.8%보다 10배가량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 2세들에게 나타나는 교육 격차는 세월이 지나면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학력 중심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지위 차이로 곧바로 연결된다고 우려한다. 2세들조차 정규교육에서 소외된다면 빈곤의 대물림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광주인권센터 관계자는 “현재 다문화가정 2세들의 상당수가 초교 저학년이지만 몇 년 후 이들이 초교 고학년, 중고교에 진학하게 되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획기적인 정책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가정형편 어려워 대학진학 대신 취업의 길로

## 정규 교육 소외가 낳는 빈곤 대물림 벗어나야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가난과 언어 발달 부진, 학습부진의 악순환은 다문화가정 2세들을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내몰고 있다. 농촌에는 열집의 손가락 숫자까지 알 정도로 가정사들이 속속 이웃에게 노출돼 있어 2세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2세는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만527명이다. 이중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2세는 35.1%인 3699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정규 교육의 중심에 다가가거나 적응하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

## ■기고

# “다문화 자녀는 한국사회의 대들보”

## 광주새날학교 이천영 교장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십여년 만에 한국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들어왔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1990년에 5만명에 그쳤지만 2010년 6월 180개국에서 온 121만 명으로 전체인구 4900만 명 중 2.5%를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 통계는 귀화자는 제외한 통계로 귀화자 10만명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131만명(2.7%) 정도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이중 결혼이민자는 67개국 18만2000여명, 외국인근로자는 180개국 55만7000명으로 조사되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국제결혼은 한국 여성이 미국남자나 일본남자와 결혼하여

미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후 1990년 중반부터 한국남성이 중국 조선족과 결혼하여 여성이 입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무렵부터는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필리핀, 태국 등의 현지인과 사업제휴를 맺고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거짓정보와 과도한 중개수수료, 톨살통식 집단맛집, 가정 폭력 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생활 정착지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국인 재혼여성의 결혼비율이 높아지자 중도입국자녀의 문제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도입국자녀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 그들의 언어

와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들이 가진 모국어와 문화적 감수성은 안보고 한국말도 못하는 바보로 취급한다.

중도입국자녀를 바보 취급하면 정말 바보가 되고 보물 취급하면 정말 보물이 된다. 우리는 이들을 보물로 만들어야 한다. 모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면 글로벌 인재로 수 있기 때문이다.

아차피 이들의 친부모는 외국인이었으나 한국인 새 아빠가 입양했기에 한국인이 될 자녀들이다. 중도입국자녀들이 한국식 확립된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훗날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때는 더 큰 비용으로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새날학교와 같은 특별한 교육시스템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이중 언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중도입국자녀를 제



계적으로 교육한다면 세계를 이끌어 가는 명장으로 성장하는 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한국 사회에 가장 큰 결실들이 되는 것은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다. 따라서 다문화자녀들은 미래 한국사회의 해결사가 될 것이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 ■ 마이녹실 임상결과

참여자 92.9%가 효과 확인



전국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마이녹실 5% 24주간 임상시험 결과, 158명 중 92.9%가 호전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우호전 5명(2.94%), 호전 47명(27.65%), 약간호전 106명(62.35%)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 대한 5% Minoxidil 외용액의 공개 다기관 임상연구(제4상 임상시험,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 대한 피부과학회지 2009년 3월호 발표

### ■ 임상연구 참여기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관동대 명지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상 가나다 순) 14개 대학병원 피부과 공동참여



바르는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1일 2회 4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십시오

제품문의 | 080-024-5525 / 02-2600-3884

검색어 | 검색창에 마이녹실을 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처방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와의 상담하십시오.]



#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땡큐죠

빠지는 머리칼과 개수에 신경 쓰이면 효과가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18세~65세 남성) 170명 대상 임상시험 결과, 모발 개수와 굵기가 증가되어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

